



▶ 2012. 11. 19. 충청북도균형발전위원회 위촉식(도청 소회의실)

제6회 충북 장애인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대회사

제93회 전국체전 충북선수단 해단식 식사

항공MRO산업발전 국제심포지엄 환영사

여성경제인협회충북지회 창립 13주년 기념식 축사

법무연수원 착공식 환영사

제33회 충청북도4-H대상 시상식 격려사

2012. 11. 1. 제6회 충북 장애인한마음 생활체육대회 대회사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

한마음생활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이 시작되는 11월의 첫 날, 모두가 하나 되는 제6회 충청북도 장애인한마음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신 선수단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 합니다.

오늘 자리를 빛내 주시는 이기용 교육감님, 괴임근 청주시부시장님을 비롯한 시장·군수과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신 지도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애인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10만 장애인 여러분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한마음 생활체육대회를 통하여 새로운 희망과 각오를 다짐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제14회 런던 패럴림픽에서 우리 충북 선수들은 우리나라 전체 금메달 9개 중 절반인 금메달 4개를 따내면서 전 세계에 충북의 이름을 드높였습니다.

이어서 개최된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경기, 서울, 인천에 이어 종합 4위의 놀라운 성적으로 도민들에게 행복과 감동을 선사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선수단은 2·3위를 차지한 서울·인천과 금메달이 3개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도세나 인구수에 비교한다면 사실상 1위의 성적을 거둔 것입니다.

이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장애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선수단의 모습을 보면서 도민들은 커다란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선수단 여러분!

오늘 개최되는 생활체육대회는 여러분들의 자립과 재활을 돋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하는 이번 대회를 통하여 오케스트라와 같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어울림을 만들 것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10만 장애인의 염원이던 장애인 전용 스포츠센터 건립을 위해 청주시 율량동에 오는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설계 중에 있으

며, 시·군별로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하는 등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당당한 도민의 일원으로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드는데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은 승패를 떠나 평소 같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시고, 서로를 아끼는 축제한마당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장애인체육회, 각 경기단체, 시·군 관계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함께하신 장애인과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무한한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5. 제93회 전국체전 충북선수단 해단식 식사

해단식은 끝이 아니라 내년을 위한 새로운 시작

자랑스런 선수단 여러분!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제93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우리 충북의 명예를 드높여 주신 선수단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힘찬 박수를 드립니다.

대회기간 중 멀리 대구까지 우리 선수단을 일일이 찾아 격려와 응원을 보내주신 김광수 도의회의장님, 이기용 교육감님, 그리고 도의회의 원님과 체육계 원로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시고 뒷바라지에 헌신해 주신 가맹경기단체장님, 각급 기관단체장님, 선수단 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선수와 임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에서 꿈을 향해 정진하면 반드시 이를 수 있다 는 도전정신을 잘 보여 주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까지 충북선수단 모두가 하나로 뜰뜰 뭉쳐 금 40, 은 33, 동 73개 등 총 146개의 귀한 메달을 따내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오른 11위를 차지하면서, 앞으로 한 자릿수 진입을 위한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수단 여러분!

오늘 해단식은 끝이 아니라 내년 대회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동안 훈련과정과 경기장에서 부딪혔던 문제점과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새로운 훈련계획을 짜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다시 뛰어야 합니다.

체육은 새로운 영역을 찾아가는 무한한 도전이며 모두를 하나로 만드는 소중한 연결고리입니다.

우리는 지난 런던올림픽과 패럴림픽, 장애인체전을 통해 선수, 임원 그리고 160만 도민 모두가 하나 되는 것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최근 충북체육은 전국체전 11위, 2017년 전국체전유치, 국가대표훈련원 건설, 중원대 스포츠단 창단 등 획기적인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 다시 한 번 충북의 희망찬 미래와 충북체육의 찬란한 비상을 위해 땀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내년에 인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함께하는 충북,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의 위상을 마음껏 드높입니다.

여러분 모두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



▲ 전국체육대회 충북선수단 해단식

2012. 11. 8. 항공MRO산업발전 국제심포지엄 환영사

청주국제공항은 새로운 MRO산업의 거점이 될 것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지사 이시종 입니다.

먼저 국토의 중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찾아주신 국내·외 귀빈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국내·외 항공MRO 전문가 여러분을 모시고 2012 항공MRO산업발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를 빛내 주고 계시는 정승찬 한국항공우주기술협회 회장님, 김광수 충북도의회 의장님과 정현 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한성주 MRO자문단장님과 투자사례 발표를 해 주실 김일곤 굴드펌프 대표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포지엄은 국내는 물론 멀리 해외에서 귀하신 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 마스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社의 아즈하리 모흐드 다할란 대표이사님, 독일 DB 쟁커社의 마띠유 딜라슈 아태담당 디렉터님, 캐나다 CAE社의 콴탄 오마호니 아시아 사업개발

담당님, 미국 유타주립대학교 랜디 체슬리 교수님, 그리고 한국항공우주산업 박기호 MRO사업담당님을 비롯한 강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심포지움을 알차게 준비해 주신 류기일 극동대학교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 중앙에 위치한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우리 충북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바다가 없는 지역이지만 우리에겐 세계로 향하여 무한한 하늘 길을 열어 줄 청주국제



▲ 항공MRO산업 발전 국제심포지엄 개회식(라마다호텔)

공항이 있습니다.

세종시의 관문공항이자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항공정비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항공전문가들은 앞으로 세계 항공기 수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주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항공 MRO산업 또한 북미와 유럽에서 아태지역과 중동으로 빠르게 옮겨 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항공시장의 잠재력을 가진 아시아시장에서 청주국제공항은 새로운 MRO 산업의 거점이 될 충분한 매력을 갖춘 곳입니다.

BT·IT·GT 등 든든한 첨단기술이 집적된 배후지 갖추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에 접근이 가능 한 편리한 교통의 중심지로서 국내뿐 만 아니라 일본, 중국과도 1시간대 거리에 위치한 아시아 시장의 중심지입니다.

그간 IT, BT, 솔라산업을 선도하며 첨단산업을 육성해 온 우리 충북은 항공정비산업 육성 또한 성공적으로 해낼 충분한 역량과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충북테크노파크에 충북의 항공산업을 지원할 항공산업 지원센터를 설치한데 이어 금년 지난 9월에는 정부로 부터 청주국제공항 주변의 조성예정인 청주에어로폴리스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사실상

지정을 받음으로써 그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이를 바탕으로 항공정비산업 육성과 국내·외 투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항공MRO 전문가 여러분과 내빈 여러분께서도 청주국제공항 항공MRO 산업 육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이번 심포지엄이 청주국제공항 항공정비 복합단지 조성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 발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행사준비를 위해 애써 주신 극동대학교 유기일 총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1. 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창립 13주년 창립기념식 축사

여성경제인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좋은 토양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

존경하는 여성경제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성경제인 생일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창립 제13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160만 도민과 함께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경실 충북지회장님을 비롯한 충북 여성경제인과 수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뜻 깊은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전수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님,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 이기용 교육감님, 한범덕 청주시장님, 하종성 충북중소기업청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성은 국가발전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우리 도만 해도 여성기업이 전체의 40%에 육박할 정도로 충북경제의 절반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여성경제인협회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인 모두가 서로 협력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 빠르게

대응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저명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미국 내 자수성가한 여성갑부 1위로, 의류 브랜드 “포에버21”의 창업자인 김진숙(49)씨를 선정하였습니다.

김진숙씨는 여성특유의 감각을 활용하여 소비자욕구를 반영한 마케팅전략으로 전세계 500여개의 매장에 4만여명의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으로 성장하였고, 올해 예상매출액 4조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여성기업인들도 풍부한 상상력과 여성특유의 감성과 섬세함 등을 이용하여 생활용품, 식품, 화장품업종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충북에서도 제2의 김진숙과 같은 글로벌 여성기업인이 나타날 거라 기대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여성경제인들이 잘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여성경제인 여러분!

최근 충북으로 변화의 물결이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습니다. 오랜 가뭄을 적셔 줄 단비를 뿌려줄 구름이 충북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 과학벨트, 첨복단지,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들과 2013년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와 2014년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충북의 역사를 바꾸어 줄 대규모 국제행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열리는 행사가 여성기업인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하는데 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여성경제인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여성기업인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여성기업을 위한 여성전용산단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건물이 비좁아 많은 불편을 겪어왔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를 새롭게 확장 이전하고, 여성CEO교육 및 멘토링사업과 여성창업보육센터 사업을 통해 여성기업인들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기업인의 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 여성기업인 대회를 개최하고 여성CEO포럼과 여성기업제품 홍보책자도 제작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성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여성기업발전종합 5개년계획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런 지원활동을 통해 우리 충청북도가 여성경제인 여러분들에게 희망과 도약의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의 창립 13주년’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충북여성경제인협회가 여성경제인들의 화합과 단결, 무한경쟁시대를 헤쳐 나가는 구심점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26. 법무연수원 착공식 환영사

법무연수원은 이화낙지형(梨花落地形) 명당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할 법무연수원이 이 곳에서 기공식을 갖게 된 것을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착공식이 있기까지 많은 지원을 해 주신 권재진 법무부장관님, 노환균 법무연수원 원장님, 곽윤상 LH공사 충북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혁신도시를 비롯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바쁘신 국정에도 자리 를 빛내주신 경대수 국회의원님, 김광수 도의회의장님, 유영훈 진천군수님, 이필용 음성군수님, 염정환 진천군의회의장님, 손수종 음성군의회의장님, 진천음성혁신도시추진협의회 장동현·경명현 양군 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규빈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법무연수원 관계자 여러분!

이곳 충북혁신도시는 전국적으로 풍수해 등 자연재해가 가장 적은 축복의 땅으로 일컬어지는 곳으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음성 진천은 행정수도 예정지로 항공측량 등 정밀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던 곳입니다. 또한 참여정부 시절에는 전국 4개 신행정수도 후보지에 포함되었던 곳입니다.

또한 이곳 혁신도시는 함박산의 정기가 서린 곳입니다. 천지가 개벽 할 때 온 세상이 모두 물에 잠기고 산꼭대기가 함지박 만큼 남았다 하여 함박산이라 이름 붙여진 곳인데 노아의 방주가 이곳에 정박했을 듯 한 길지 중의 길지입니다.

또한 법무연수원이 건립될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마을은 850여년 전인 고려 때부터 이화낙지형(梨花落地形)이라 하여 이곳을 최고의 명당이라 하였고 이곳에다 강당을 짓고 학동(學童)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던 유서 깊은 곳입니다.

이렇게 유서 깊고 명당 중의 명당인 이곳에 법무연수원이 건립되는 것은 아마도 필연이 아닌가 생각되며 앞으로 법무연수원이 세계 최고의 연수원으로 성장할 징조라고 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충북혁신도시로 이전하는 법무연수원 임직원들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주여건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곳 주민들도 여러분을 따뜻하게 맞이해 드를 준비가 완벽하게 돼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끝으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진천·음성 군민여러분과 법무연수원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1. 30. 제33회 충청북도 4-H 대상 시상식 격려사

4H정신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초석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33년의 전통을 간직한 제33회 충청북도 4-H 대상 시상식이 성대히 개최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실한 4-H활동과 봉사활동으로 영예의 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H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충북지역 개발회 이상훈 회장님, 충북일보 변근원 사장님,

그리고 충북4-H본부 성기남 회장님, 한국4-H본부 이홍기 회장님, 한국4-H연합회 이행도 부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내빈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4-H가족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두 사람이 사과를 하나씩 서로 맞바꾸면 사과는 여전히 한 개씩이지

만, 아이디어를 서로 맞바꾸면 각자 아이디어를 두개씩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모두들 농업이 위기라고 합니다. 이럴 때 일수록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서로 나눈다면 우리의 앞날은 희망으로 빛날 것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처럼 知德勞體의 4-H 정신으로 한발 앞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예로운 수상을 하신 수상자들처럼 젊은이다운 패기와 열정으로 무한한 기회의 장에서 새로운 주인공으로 우뚝 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충청북도의 농산물 수출액이 지난해 3억\$에서 5억\$로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는 더욱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도에서 많은 지원과 노력을 기울 이겠습니다.

4-H운동의 역사는 새마을운동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H 정신을 바탕으로 한 농촌운동이 새마을 정신으로 승화되어 새마을 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냈고 우리나라의 근대화, 산업화, 현대화를 이루하는데 4-H 이념이 기본 초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으신 분들의 노력과 헌신으로 4-H회가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합니다.

11월의 마지막 날 여러가지 바쁘신 중에도 오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12월도 의미있고 보람있는 날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2. 12. 24. 희망 2013 나눔캠페인 순회모금(청원군민회관)

충청북도 자원봉사자대회 격려사

충북장애인체육상 시상식 치사

충청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

제12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 식사

충주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준공식 축사

2012년도 송년사

2012. 12. 10. 충청북도 자원봉사자대회 격려사

베푸는 삶을 사는 자원봉사자의 삶이 가장 멋진 삶

존경하는 21만여 자원봉사 가족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원봉사 가족여러분이 한 해 동안 펼쳐 오신 나눔과 봉사의 결실을 수확하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자원봉사자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금년에도 자원봉사 가족여러분의 사랑으로 도내 곳곳에 희망을 안겨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회준비를 위해 애쓰신 강길중 도 자원봉사센터장님, 강환국 운영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군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대회를 축하해 주시고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김광수 도의회의장님, 정상혁 보은군수님, 박상필 도의회의원님, 그리고 시장.군수 사모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의 남다른 공적으로 국민포장을 수상하신 김영옥님을 비롯한 수상자 여러분 모두에게 찬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자원봉사자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지역발전의 중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해였고 큰 농사를 지은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한 해 동안 자원봉사 릴레이를 통해 12개 시·군 60개의 자원봉사 단체가 자원봉사에 참여해 도내 곳곳에 사랑을 전달한 한 해였습니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충주세계무술축제,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청원생명축제, 보은대추축제, 옥천농특산물축제, 영동난계국악축제, 증평문화제, 진천농다리축제, 괴산고추축제, 음성품바축제, 단양철쭉제 등 지역의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개최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자원봉사 가족여러분께 거듭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자원봉사 가족여러분!

내년과 후년 도에서는 아주 중요한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5월에 열리는 오송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와 8월에 열리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그것입니다. 또, 2014년에는 오송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가 열립니다.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루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여러분!

영국의 일화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귀족의 아들이 시골에 놀러왔다가 수영을 하려고 호수에 들어갔는데 발에 쥐가 나서 익사 위기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그때 한 농부의 아들이 그를 구해 주었고 둘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얼마 후 의사가 꿈이던 농부의 아들이 가정형편으로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귀족의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해 농부의 아들을 런던으로 데려왔답니다.



▲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대회

그리고 그 농부의 아들은 의과대학을 나와 의사가 되었고 ‘페니실린’이라는 기적의 약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1945년 노벨 의학상을 받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 후 그를 도와준 귀족의 아들은 훌륭한 정치가로 성장했는데 그가 바로 민주주의 수호자 ‘윈스턴 처어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어칠’이 전쟁 중에 폐렴에 걸려 또 다시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플레밍’이 만든 ‘페니실린’ 때문에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 우연히 맷어진 인연이 서로에게 빛과 생명을 주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농부의 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귀족의 아들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페니실린도 없고, 처어칠도 젊은 나이에 목숨을 잃었을 것입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베푸는 삶을 살고 계신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야 말로 가장 멋진 삶을 살고 계십니다.

끝으로 오늘 대회가 자원봉사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조금이나마 위로의 장이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잘 마무리 하시고, 다가오는 계사년 새해에도 더욱 의미있고 보람된 해가 되시길 바라며,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11. 충북장애인체육상 시상식 치사

아름다운 도전과 꿈이 실현된 희망의 한 해

장애인체육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올 한해 충북을 빛내주신 성과와 업적들을 격려하고, 상을 드리는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먼저, 올 한해 충북의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하신 영광의 수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오제세 국회의원님, 김광수 충청북도의회 의장님, 이기용 충청북도 교육감님, 한범덕 청주시장님, 신용식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님, 남상래 충북신체장애인복지회 회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랑스런 장애인체육인 여러분!

올 한해 우리 충북의 장애인체육은 한마디로 '아름다운 도전과 꿈이 실현된 희망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14회 런던 패럴림픽에서 충북 선수들은 금 4개, 동 2개를 획득하며 충북의 이름을 전 세계에 드높였습니다.

또한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는 선수단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경기·서울·인천에 이어 전국 4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선수 여러분들의 강한 도전정신과 뜨거운 열정이 만들어낸 결과이며, 여기에 지도자와 가족, 자원봉사자들의 아낌없는 사랑이 더해 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수상자뿐만 아니라, 장애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꿈을 가지고 도전하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서로에게 격려와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

힘차게 달려온 임진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2012년 한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오신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남상래 회장님을 비롯한 9만여 장애인가족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년에도 충북 장애인 체육이 전국을 제패하는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21. 충청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 축사

새마을가족은 함께하는 충북의 든든한 동반자

12만 충청북도 새마을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구나 오늘 서설이 내려 여러분들의 새마을지도자대회를 축하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올 한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설계하는 충청북도새마을지도자대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처럼 성대한 행사 준비를 위해 많은 애를 쓰신 오창진 회장님과 최주영 지도자회장님, 이영희 부녀회장님, 박종천 직장회장님, 장현봉 문고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대회를 빛내주시기 위해 함께해 주신 정우택, 오제세 의원님, 오흥배 새마을문고중앙회장님과 충청북도의회 김희수 위원장님, 김봉희 의원님, 김진우 농협 충북지역본부장님과 역대 회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충청북도 새마을발전을 위한 공로로 표창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금년 한해 충북 새마을가족 여러분들은 지구 온난화에 대비한 녹색생활화운동을 펼치셨고, 양반고을 충북을 만들기 위한 품격 높이기 운동을 전개하셨습니다.

소년소녀가장과 어려운 이웃에게 새로운 삶의 희망을 전하는 행복나누기 운동과 저개발 국가에 도로포장과 교실을 지원하는 새마을 세계화 운동을 통해 새마을 코리아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도·농교류, 전통시장 장보기, 다문화가정 손잡기, 장애인과 함께하기 등을 통해 우리도가 목표로 하는 '함께하는 충북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충북 새마을가족의 값진 노력의 결과는 2012년 전국 시·도 새마을평가에서 최우수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오창진 회장님을 비롯한 새마을가족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감사와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새마을 가족 여러분!

지난 19일에는 국민의 선택으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새해부터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운 융성의 시대를 열어 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가 끝난 만큼 그간 선거과정에서 나타난 갈등과 반목을 하루빨리 접고 국가발전을 위해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충청북도 새마을 가족 여러분!

내년에는 충북에도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될 대규모 국제 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년 5월에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열리고 8월에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이 국제대회의 성공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우리 12만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다면 성공은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북 100년 번영을 위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는데 새마을가족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고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함께하는 충북건설의 주역이 되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2012 충청북도 새마을지도대회를 거듭 축하드리고, 충청북도새마을회의 무궁한 발전과 계사년 새해에 여러분 모두의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 12. 24. 제12회 충청북도 도민대상 시상식 식사

충북을 대표하고 ‘함께하는 충북’을 만드는 충북 도민대상

우선, 영예로운 도민대상을 받으신 여섯 분과 가족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하의 의미로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한다는 뜻으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시상식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광수 도의회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11월 23일 엄정한 심사를 위해 신중한 논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하여 주신 유성종 위원장님과 심사위원님들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수상하신 분들을 소개하자면, 먼저 지역사회부문에서 수상하신 김연호 님입니다.

김연호 님은 우리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기 위해 향토사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제천 내제문학연구회를 창립하고 ‘내제연구’를 발간하는 등 제천의 문예부흥을 통해 제천문학의 르네상스를 불러 일으킨 장본인이십니다. 특히, 사재를 털어 수집한 문화재 630여 점을 국립청주박물관에 기증하여 문화재의 소중함을 다함께 공유하는데 공헌하였습니다.

지역사회부문 공동수상자이신 연만희 님은 도곡장학재단을 2001년도에 11억원을 쾌척한 이후에 십수년간 매년 4천여만원의 장학금을 기부하여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해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 계승을 위해 ‘회인서당’을 설립하였고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청소년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여 왔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서 수상하신 김선플 님은 10대 체육계에 몸담아 오면서 평생을 충북체육에 몸바쳐 오신 분이십니다. 그동안 충북체육회에 재직하시면서 전국체육대회를 두번이나 충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특히, 제85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종합 3위의 위업을 달성하여 충북도민의 위상을 크게 드높였고, 실업팀 창단으로 선수육성의 기틀을 마련하는 등 충북체육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부문 공동수상자이신 김홍은 님은 20여년간 문학창작법 지도를 통해서 100여 명의 문인을 배출하였습니다. ‘충북수필문학상’ 등 여러 문학상을 제정하여 지역 작가들의 창작열을 높이고, 전국 대상의 계간지인 ‘푸른솔문학’지를 발행하여 충북문학을 전국에 알리는 등 문학발전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부문에서 수상한 윤명태 와인코리아(주) 대표이사이십

니다.

윤병태 님은 와인의 선각자로 와인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와인을 개발하여 세계적인 브랜드로 육성하여 충북의 위상을 높이셨고, 지역 포도를 이용한 와인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와인을 연계한 관광상품인 와인트레인을 개발하여 1년에 20만명의 관광객을 끌어 들여 충북관광 활성화와 충북 영동을 전국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행봉사부문에서 수상하신 이인수 청주여자교도소 교정위원님입니다. 이인수 님은 어머니같이 마음으로 장기복역수와 복지 시설 등에 매월 생일상과 생필품 제공하였습니다. 또, 20여년전 우암 상가 붕괴사고 때에는 재해복구 현장의 최일선에 참여하여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30여 년간의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되었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존경하는 수상자와 내외 귀빈 여러분!

충북도민대상은 한동안 중단 되었다가 민선5기 들어 다시 부활시켜 작년부터 시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상금을 줄 수 없어 도민대상 시상을 중단했다는 말을 듣고 실질적으로 상금보다 더 소중한 명예를 드리자고 하는 뜻에서 부활시키게 된 것입니다. 도민대상 제도는 민선5기의 도정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을 만드는데 많이 기여할 것이며, 도민대상이 함께하는 충북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도민대상 수상자들의 업적을 영원히 기리고 도민들로 부터 존경을 받게 하여 충북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충북도민대상이 더욱 발전하여 우리 충북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 충북발전에 기여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 뒷바라지 하시느라 애쓰신 가족 친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임진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며칠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밟아오는 2013년 계사년 새해에도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발전에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리면서 모든 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2.12.26. 충주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준공식 축사

전세계 조정인들이 극찬하는 걸작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조정인 여러분!

먼저, 세계최고의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준공을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충주가 세계적인 수상스포츠의 메카로 우뚝 서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참으로 자랑스럽고 기쁩니다.

이렇게 훌륭한 국제조정경기장을 만들어 주신 이종배 충주시장님, 김석준 쌍용건설 회장님을 비롯한 대홍종합건설, 삼덕건설, 계룡건설, 삼보종합건설 시공사 사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충주에 세계적인 명품 조정경기장이 탄생하기까지 전폭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윤진식 국회의원님, 김광수 도의회의장님, 진용남 충북조정협회장님, 김동환·심기보·윤성옥 도의원님, 양승모 충주시의회의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세계조정연맹(FISA)과 전세계 조정인들은 오늘 준공된 결작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 대하여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42일('13. 8. 25) 지나면 세계 최고의 조정경기장이 있는 이 곳에서 세계 80여개국 2,300여 세계조정인이 탄금호의 물살을 힘차게 가르면서, 지구촌 조정인의 화합과 우정을 나누는 대축제가 열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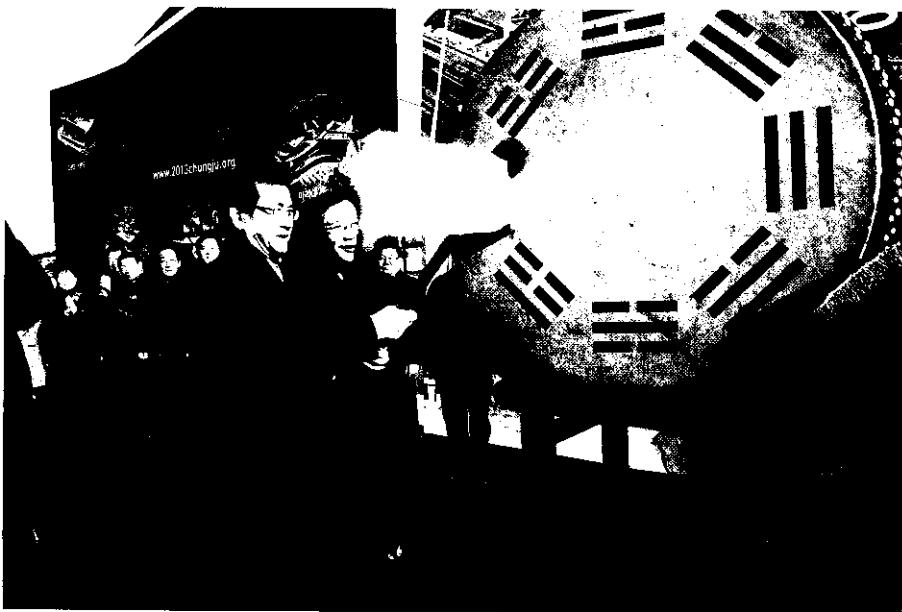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오늘 준공식을 갖게 되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위해 지난 2005년 경부터 노력하신 충주시민들 여러분들의 모습이 새롭습니다.

조정의 불모지인 충주에서 감히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겠다고 선언한 당시 한창희 시장님과 시민여러분의 용기가 오늘을 있게 하였습니다.

또한, 김호복 시장님 계실 때 문화관광체육부와 충청북도, 그리고 충주시의 노력으로 끝내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유치하게 되었고, 그 당시 저도 국회에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국가지원행사로 만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고 예산을 따기 위해 동분서주 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그 후 이종배 시장님과 윤진식 국회의원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오늘



▲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준공식

준공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준공식이 있기까지 도움을 주신 충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조정인 여러분!

오늘 조정경기장 준공을 계기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전 세계인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공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준공을 축하드리며, 그 동안 적극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함께 축하해 주신 내외규빈 여러분 더욱 건승하시고, 계사년(癸巳年)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3총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2년도 송년사

함께하는 충북의 힘으로 도정 5관왕의 영예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임진년 한 해가 보람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충북 발전을 위해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국제적으로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였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의 잇따른 정권교체로 변화의 소용돌이가 여느 때 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김정은 체제 공고화를 위해 UN안보리의 제재 결의에도 불구하고 로켓을 발사하여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 19일 박근혜 후보가 국민의 선택을 받아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국운 융성의 새 시대가 전개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충북은, 이상기후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FTA 발효 등 우리를 시험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충북 100년 미래를 밝혀줄 희망의 횃불을 높이 들어 올린 한 해였다고 자부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창성하고 태양이 찬란히 비추이는 ‘생창양휘(生昌陽輝)’의 힘찬 기상으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씨줄로 삼고 ‘함께하는 충북’을 날줄로 삼아, 도정사에 가장 빛나는 금자탑을 쌓아올린 역사적인 한 해였습니다.

특히, 금년 한 해 우리 충북은 “5관왕의 영예”를 거머쥐었습니다.

- 지난 19년 동안 4번의 도전 끝에 이뤄낸 청원·청주 통합 결정,
- 5년여의 뚝심으로 새로운 경제신화를 이뤄낼 충북경제자유구역 예비 지정,
-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3조 8,537억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확보,
- 정부합동평가에서 전국 최우수도 달성,
- 그리고 충북 인구 160만 시대 진입 등이 그것입니다.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이 ‘함께하는 힘’을 발휘하여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성원해 주신 160만 도민 여러분과 지역출신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언론과 시민단체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아울러 가장 많은 땀방울을 흘리신 1만 2천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하며, 금년도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 한 해 우리 충북은 오랫동안 숙원이었던 각종 현안들을 대부분 해결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을 선도할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을 맞이 할 채비를 갖췄습니다.

지난 7월 세종시가 출범하였고, 지난 12월 27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 입주하는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7개 중앙행정기관의 개청식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이제 충청권으로 본격 이동함에 따라 대망의 신수도권 시대, 중부권 시대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높이 울랐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우리 충북은, 4수의 도전 끝에 청원·청주 통합을 결정하여 인근 세종시, 대전시, 충남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신수도권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시로 편입된 부용면 인구 7천명을 제외하고도 충북인구가 159만명을 넘어 160만 시대에 진입하였습니다.

항상 강원도보다 적던 충북 인구가 이제 강원도를 3만 8천명이나 추월한 것은 충북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지표라 하겠습니다.

특히, 160만 도민이 하나되어 5년여의 뚝심으로 이뤄낸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지난 12월 1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하여 본 지정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신수도권 시대를 이끌어갈 선도산업이며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건설에 방점을 찍는 ‘화룡점정(畫龍點睛)’으로서 앞으로 또 다른 충북의 경제신화를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둘째,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일구어 온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한층 더 기름진 땅으로 가겠습니다.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과 60여개의 첨단 바이오기업이 입주한 오송 바이오밸리에는 타 지역과의 치열한 경합을 물리치고 줄기세포·재생 연구센터와 산학융합지구를 끝내 유치하였습니다.

국립 중앙인체자원은행 개관, 국립 의과학지식센터와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착공 등으로 세계적인 바이오밸리의 위용도 점차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2014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국제행사로 최종 승인됨으로써 오송이 세계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도 반가운 일입니다.

충북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마침내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곧 보상에 착수하게 되었으며, KTX 오송역 세권 개발사업도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로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니다.

제천 한방산업, 옥천 의료기기산업, 괴산 유기농산업을 오송 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충북 전역을 세계적인 바이오밸리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인류 미래의 에너지 보고(寶庫)인 솔라밸리는 세계경제 위기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금년에만 1조 3천억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이끌어냈습니다.

솔라밸리 재도약 프로젝트 국가정책 반영, 솔라밸리 마스터플랜 수립, 경로당 태양광 보급(103개소), 신재생에너지산업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 등으로 아시아최고의 태양광산업 육성기반을 착실히 닦은 것도 보람있는 성과입니다.

셋째, 세계 경제위기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활성화와 다양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충북경제에 더 큰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유럽의 재정위기와 미국·중국 등의 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북은 2년 연속 수출 120억불을 달성하여 수출 강도(強道)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민선5기 들어 글로벌 기업을 비롯한 총 1,628개 기업이 우리 도에 둉지를 틀어(13조 3,806억원 유치), 5만 7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 충북의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의 자립 자금을 확대 지원하고, 옛 향수와 추억이 서려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 경쟁력 있는 사회적 기업과 착한 가격업소 육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내수활성화 등으로 서민이 살 맛 나는 서민경제 정책도 적극 펼쳤습니다.

그 결과, 올 한 해 우리 충북은 GRDP와 제조업 생산·산업단지 수출·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등에서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는 등 충북은 지금 기업과 사람이 몰려오는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넷째, 전국 최초로 ‘치매와 중풍 걱정없는 충북’을 만들고, 노인과 장애인 등이 행복한 충북을 실현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서민복지 를 선도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치매와 중풍으로 고통 받는 노인과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전국 최초로 ‘치매와 중풍 걱정없는 충북’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사업을 추진하여 웃음이 없는 메마른 농촌지역을 웃음바다로 만드는 등 어르신들이 행복한 건강 프로젝트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제,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충북도립 대 반값수업료, 중증장애인 일감 지원사업 등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복지정책을 선도해 가고 있는 것도 충북의 또 하나의 자부심입니다.

다섯째,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본격 건설하는 등 도내 전역이 고루 잘 사는 균형발전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도내 전역을 반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는 기본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 구간인 초정~미원, 미원~운암, 보은~영동, 영동~용산 구간의 도로는 국·도비를 집중 투자하여 설계 및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적으로 세종시~충북~경북도청 신도시를 잇는 동서5축 고속도로,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건설사업도 단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된 남부·북부지역에 도청 출장소를 설치하고, 남부와 북부권에 심야버스를 운행하며,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소외지역을 해소하는데도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외·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신발전지역 프로젝트에 제천·단양을 추가하고 내륙 초광역벨트를 개발하는 등 도민들 간의 거리감을 단축하여 '함께하는 충북' 실현의 시금석을 마련하였습니다.

여섯째,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의 관문공항, 중부권의 대표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공항활성화를 위한 기반들을 착실히 다져 왔습니다.

지난 6월,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건설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를 통과하여 본격적인 설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국제선 화물과 대형항공기 유치에 꼭 필요한 활주로 확장사업은 청주 공항 활성화의 핵심이 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인 만큼 지역 국회의원 등과 힘을 합쳐 정부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주역과 오근장역 사이에 북청주역을 신설하는 사업이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건설사업 타당성 검토안에 포함됨으로써, 청주를 철도 소외도시에서 철도 친화도시로 변모시켜 나갈 수 있도록 시동을 걸었습니다.

일곱째, 공세적인 수출농업 육성으로 FTA시장 개방화 물결을 극복하고, 고부가가치 '생명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닦았습니다.

우리 도는 농업이 모든 산업의 기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자연재해 극복과 함께 한·미 FTA 발효에 따른 농·축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FTA 긴급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수 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하는데 적극 노력한 결과 지난 11월 미국에서 열린 충북 농특산품 홍보전에서 24억원을 수출하는 등 금년도에 총 4억불 수출을 성사시켰습니다.

또한, 올 상반기 귀농·귀촌인구 전국 1위, 온라인 농산품 판매액 전국 1위, 농산물 수출평가 전국 우수도 달성, 전국 최초의 '여성농업인 복지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팔목할만한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15년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유치하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유기농 생태마을 조성 등 제2의 농업 혁명이라 불리는 유기농 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한 것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상청 레이더 비교 관측소를 유치하여, 이미 운영 중인 국가 기상위성센터, 국가 기상 슈퍼컴퓨터센터와 함께 충북을 세계적인 기상특화道로 부상하는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여덟째, 전국 제일의 매력있는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 모두의 응원 속에 충북체육은 대박을 터트렸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대규모 관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관광산업이 활기를 찾지 못했으나, 최근 1조원 규모의 친환경 복합 레저단지와 대규모 중국인 관광객 유치 등으로 관광산업 활성화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충북문화관, 청남대 대통령 역사교육관, 단양 수변공원, 괴산 산막이 에코어드벤처, 영동 와인테마마을 등 고품격 관광 인프라도 크게 확충하여 3년 연속 관광객 5천만명 시대를 열었습니다.

아울러 지난 10월, 중국 언론의 뜨거운 관심 속에 국내 6만명의 중국인 학생들과 함께 개최된 제2회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14억 중국인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고 한·중 관광교류의 물꼬를 활짝 트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특히, 충북문화재단과 충북문화관을 중심으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더욱 높였고, ‘2012년 충북 민속문화의 해’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민속문화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펼쳤습니다.

2012년 런던 패럴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금메달 9개중 충북선수단이 4개의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또한, 전국소년체전종합 3위,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종합4위, 경부역 전 마라톤대회 7연패, 국가대표 훈련원 2단계 유치, 2017년 전국체전 유치 등으로 우리 충북이 대한민국 체육의 성지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도내 1만 2천여 공무원들이 160만 도민과 충북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반드시 해내고야 말겠다’는 정신 무장을 하게 된 것이 더없이 값진 성과라 하겠습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충북 공무원들을 가르켜 ‘도지사부터 직원들까지 정 말 집요하다’, ‘휴일의 기획재정부는 충북이 접수했다’고 할 정도로, 충청북도 공무원들은 올 한 해도 전국에서 가장 바쁘게 ‘발로 뛰는 도정’을 수행해 왔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조 8,537억원의 내년도 정부예산안을 확보한 것은 바로 ‘발로 뛰는 도정’의 결과물인 것입니다.

특히, 정부의 균형재정 정책기조와 신규사업 억제방침에도 불구하고, 충주댐 계통 공업용수도 공급과 중부내륙권 광역관광 개발, 바이오 산림휴양밸리, 산지개발 과수단지, 자활연수원 건립 등 총사업비 2조원 이 넘는 대단위 신규사업 87건을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바다가 없는 내륙도 충북에서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지난 2009년 이후 4년 만에 1조원의 국비를 더 증액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정부합동평가 최우수 이외에도, 지방물가 안전관리 최우수, e-마케팅 페어대회 4년 연속 대상 등 전국단위 평가 7개 분야에서 73개의 수상과 함께 47억 3천만원의 시상금을 받아 언론으로부터 '상복이 터졌다'는 칭찬도 들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든 성과는 도와 시·군 공무원들의 현신적인 노력과 함께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과 시민단체가 적극 도와주고,

특히 160만 도민 모두가 일치단결하여 이루어낸 값진 결과라 생각되어 충북도민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금년 한 해 엄청난 도정 성과에도 불구하고, 적십자 회장선출 및 무상급식과 관련하여 도민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은 옥에 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1만 2천여 공무원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견고한 기초 위에 좋은 건축이 있고 튼튼한 뿌리 위에 좋은 꽃과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는 160만 도민의 땀과 지혜, 그리고 열정을 하나로 모아, 어떤 도전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을 충북의 튼튼한 기초를 다졌고, 강건한 뿌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꽃 봉우리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계사년 새해에는 저를 비롯한 1만 2천여 공무원 모두는 그동안 닦아온 충북의 튼튼한 기초 위에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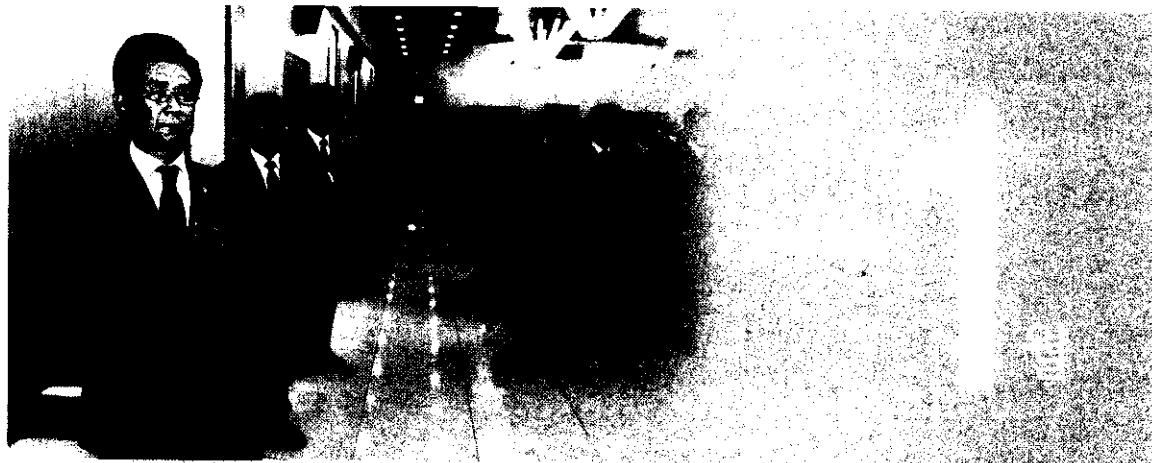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더욱 빛나고 160만 도민이 ‘함께하는 충북’을 이끌어 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충북도정에 적극 성원해 주신 도민 여러분, 그리고 5관왕의 영예를 달성하느라 고생하신 1만 2천여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는 더 큰 꿈 이루시고 가정에도 항상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3. 1. 3. 2013년도 시무식(도청 대회의실)

2013년도 신년사

2013년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12 충북체육상 시상 및 2013 신년회 인사말씀

9988 행복나누미 사례발표 보고회 격려사

이스타항공 심양 정기노선 취항식 축사

2013. 1. 1. 2013년도 신년사

충북 100년 미래 청사진을 설계하고 기틀을 다질 터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온 누리 가득히 풍요와 희망이 넘치는 계사년(癸巳年)의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도민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새해에도 160만 도민 여러분을 도지사로 깍듯이 모시고,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도민의 뜻을 잘 받아들여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계사년 새해는 민선5기 4년차를 맞이하는 해로, 충북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600여년간 이어온 수도 서울에서 경제부처가 세종시로 본격 이전함에 따라 우리 충청권이 경제중심의 ‘신수도권’으로 새로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수도권의 관문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충북은 새로이 전개되는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으로 본격 진입하게 되어 정치·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소용돌이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올 한해 우리 충북은, 이러한 신수도권 시대에 본격 대비하여, 충북 100년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기틀을 다지는데 도정의 중점을 둘 것을 약속드리면서 2013년도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올 한 해 우리 충북이 새로이 전개되는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에 우뚝 서는 원년이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충북이 세종시의 관문기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권에서 세종시로 진입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울진에서 세종시로 연결되는 동서5축 고속도로, 제천~평창 고속화도로, KTX 호남선 등을 조기에 착공 또는 완공되도록 하면서,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청주공항 활주로 확장 등으로 청주국제공항을 세종시 관문공항으로서 위상을 더욱 굳혀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오송 제2산단, KTX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세종시의 배후 주거·관광·물류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그밖에 청남대 개발, 바이오산림 휴양밸리 조성, 중원문화권 특정지역과 중부내륙 광역 관

광권 개발 등으로 세종시의 배후 관광·휴양기능을 담당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160만 도민의 염원 속에 탄생할 청월·청주 통합시가 인근 세종시, 대전시, 천안시와 함께 신수도권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맡령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통합 청주시’의 밑그림을 담대하게 그려 나가겠습니다.

둘째, 지역간·계층간·도농간 소통과 균형발전을 통해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남북으로 길게 뻗은 지형적인 여건에다 이를 관통하는 교통망이 부족하여, 지역간 일체감과 동질성이 미약하고, 또한 계층간 세대간에 소통이 부족하여 상호 단절된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와 영동~내수간 제2충청내륙 고속화도로를 본격 추진하고, 중부내륙선 철도, 남일~보은간·단양~영월간 국도를 조기에 건설하여 지역간 거리를 좁히고 하나 된 충북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음성~충주간 고속도로는 올 8월에 개최되는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전에 개통되도록 서둘러 추진하고, 충주~제천간 고속도로, 제천~원주간 복선전철, 괴산~괴산IC간 국도사업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제천·단양지역을 신발전지역에 포함시키고, 충주 기업도시와 충북 혁

신도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중원문화권 개발,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과 공익근무 요원 교육원 건립, 균형발전특별회계 확대 등을 통해 도내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닦아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 추진해 온 북부·남부출장소와 심야버스 운행을 더욱 내실화 하면서, 민간 사회단체·언론기관 등을 중심으로 160만 도민이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함께하는 충북 대토론회, 160만 도민과의 대화, 권역별·계 층별 공청회, 충북의 얼과 뿌리 찾기, 대학생 충북 대장정 등을 통해 충북의 가치와 자존심을 160만 도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함께 참여하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도가 선점하여 비옥하게 일궈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확실히 굳혀 나가겠습니다.

이제 생명산업과 태양광산업은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는 이 양대 산업을 충북 100년 미래 먹거리를 위한 전략산업으로 더욱 탄탄하게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올 해부터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국가 핵심 연구·지원시설, 대학과 기업의 바이오연구소 등이 본격 가동되면서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의 위용이 서서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대구첨복단지와 치열한 경쟁에서 유치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오송을 국가 줄기세포 연구의 메카로 굳혀 나가는 한편, 오송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에 따라 오송 바이오밸리를 본격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충북의 오랜 숙원이던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8년여의 노력 끝에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협의를 마치고 본격적인 보상에 나설 계획이며, KTX 오송역세권 개발도 주민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입니다.

아울러, 제천 한방산업, 옥천 의료기기산업, 괴산 유기농산업을 오송 바이오산업과 연결하여 바이오 사각벨트를 구축함으로써 생명산업의 연관효과를 극대화하고 충북 전역을 ‘생명의 땅’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태양광산업은 미래 성장산업이자 결코 마르지 않는 미래 에너지의 보고(寶庫)입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 중인 태양광업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태양광산업이 제2의 성장기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충북 혁신도시를 전국 최초의 솔라 그린시티로 육성하면서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솔라그린 산업단지와 태양광 이미지驛 조성, 경로당 태양광

보급 확대(378개소) 등으로 충북을 ‘태양의 땅’으로 확실하게 굳혀 나가겠습니다.

넷째, 160만 도민의 힘으로 탄생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제2의 충북경제 신화를 만들어 나가면서, 환경 충북을 함께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 어려운 서민경제를 더욱 챙겨 나가겠습니다.

5년여의 산고 끝에 결실을 본 충북경제자유구역은 충북 100년 번영의 핵심 동력이자 국가발전의 또 하나의 축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오송 바이오밸리, 청주공항 에어로폴리스, 충주 에코폴리스로 구성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을 단계적으로 개발하여 그 효과가 도내 전역에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초 본 지정을 끝내고 곧바로 경제자유 구역청을 설치하여, 외자 기업유치와 함께 외국인 정주여건 조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글로벌 경제의 중심지로 전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내 전역에 튼실한 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각종 산업단지 진입 도로를 개설하며, 충주·음성·괴산·진천·증평지역에 공업용수를 공급

하는 2,500억원 규모의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 사업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성장 일변도에서 벗어나 환경을 함께 중시하는 경제정책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도내 13개의 산업단지 폐수처리 시설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 비점오염 저감시설 설치 등으로 수질오염 총량제에 적극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베풀목인 동시에 서민 경제의 바로미터입니다.

전문가들은 올 해도 미국 경기침체와 유럽의 재정위기, 중국의 수출 부진 심화 등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국내 서민경제에도 비상상황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년에도 우리 도에서는 저소득 서민들을 위한 햅살론과 영세자영업자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전국최초로 도내 전 시·군에 공급 한 도시가스를 더욱 확대 공급하며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LPG저장탱크 보급도 늘릴 것입니다.

여기에 서민금융 종합 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와 문화·관광과 연계한 특성화 전통시장을 육성하여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을 통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올 한해 5조 5천억원 규모의 투자유치, 140억불 규모의 수출, 24개의 사회적기업 육성 등으로 우리 청년들에게 5만 1천개의 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160만 도민의 힘으로 어렵게 따낸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시스템 반도체산업 클러스터, 미니형 외투단지 등 미래형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성장의 혜택이 도민 가슴에 와 닿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섯째, 어르신들이 건강한 실버토피아 충북과 사회적 약자들이 행복한 복지충북을 실현하여, 출산에서 노후까지 「찾아가는 평생복지」를 충북형 복지브랜드로 키워 가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어르신들의 복지는 더 이상 늦추거나 지체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입니다.

이에 따라 치매관리지원센터 설치, 치매환자 주간보호지원 등 치매의 예방·검진·치료·돌봄으로 연결되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치매와 증풍 걱정없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노후 생활에 웃음과 건강, 신바람을 불어넣어 전국적 수범사례로 꼽히는 ‘9988 행복나누미’ 사업도 대폭 확대 시행할 것입니다.

또한, 전국 처음으로 장애인 직업 원스톱 재활시스템과 장애인 재활 공동체 설립,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와 저소득가정 재무컨설팅 지원 등 약자를 배려하는 서민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성평등 사회문화를 더욱 확산시키고, 충북 여성들의 공동연구·토론·교제·교육의 광장이 될 여성프라자를 설립하며, 모자보호시설 다목적 일터, 위기청소년 쉼터 건립 등 여성이 살기 좋은 여성친화道를 만드는 데에도 도정의 역점을 두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괴산에 호국원을 조성하고 충주 동락전승지를 성역화하며,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하겠습니다.

여섯째, 우리 충북을 전국 제1의 유기농특화도로 만들고, 적극적인 수출농업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에 방어적 자세가 아닌 공세적 자세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은 친환경에 달려 있습니다. 외국 농산물과 경쟁에서 살아남고 도시 소비자의 지갑을 열게 하는 힘도 친환경 유기농업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올 한 해 도에서는, 세계 최초로 충북 괴산에서 개최되는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가 대성공을 거둘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유기농 푸드밸리를 조성하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와

유기농 생태체험관 건립, 무농약 인증면적 확대(5,800ha) 등 유기농 시장을 발 빠르게 선점하여 유기농을 미래 유망산업이자 기회산업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제 확대, 안전한 농촌만들기, 축산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여 기상이변과 FTA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에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격적인 수출 농업으로 올해는 농특산물 수출 5억불의 금자탑을 쌓겠습니다.

이와 함께, 바다가 없는 충북에 국비를 지원받아 대규모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를 조성하고 친환경 농업연구센터와 와인연구소를 설립하겠습니다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와 고품질 과수단지를 조성하여 연구·생산·유통·관광이 연계된 미래형 농산업도 적극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본격적인 신수도권 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고급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적극 조성함은 물론, 도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는 체육정책도 적극 펼치겠습니다.

관광산업은 경제성장과 더불어 가장 각광받는 미래산업입니다.

신수도권시대 개막과 함께 사회변화에 적극 대응하면서 관광산업을 우리 도의 주력산업으로 한 차원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중부권과 수도권 관광객을 함께 아우르는 대규모 산림 휴양·치유시설인 바이오산림 휴양밸리와 한류문화의 거점 역할을 하게 될 제천 드라마 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진천 배티 세계순례성지, 청남대 대통령 테마 관광지, 음성 친환경 명품 웰빙타운, 중원 고미술거리 등 지역특성과 트렌드에 맞는 관광시설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한국철도공사(KORAIL)와 협의하여 금년 2월부터 국내 최초로 단양~제천~태백~봉화~단양을 오가는 백두대간 순환 관광열차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올 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은 국가행사로 격상하여 개최하고, 중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연풍새재 휴양관광지, 영동 와인테마마을 조성 등으로 충북의 관광 매력지수를 한 단계 더 높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농촌지역 학교 등 문화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공연을 확대 (50회)하고 저소득층 예술공연 무료 관람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3,300억원 규모의 진천 국가대표훈련원 2단계 사업을 본격 시작하고, 스포츠건강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을 적극 검토하며, 스포츠팀 창단 확대, 생활체육시설 확충 등으로 체육 강도(強道) 충북의 이미지를 확실하게 심어 나가겠습니다.

여덟째, 금년을 「세계로 도약하는 충북」의 원년으로 삼아 오송 화장

품·뷰티 세계박람회와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충북의 위상을 세계로 드높이겠습니다.

금년은 우리 충북을 세계에 선 보이는 두 개의 큰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화장품과 뷰티산업을 전 세계에 과시할 축제인 오송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와, 세계 80개국 2천 3백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입니다.

도에서는 “충북은 세계로! 세계는 충북으로!”란 구호 아래 충북이 세계로 나가고, 세계가 충북으로 들어오는 충북사상 최대의 국제행사가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시인 조동화 선생께서는

“나 하나 꽂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 네가 꽂피고 나도 꽂피면 결국 풀밭이 / 온통 꽂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도민 한 사람의 힘은 작지만 160만 도민이 함께하면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160만 도민이 함께 꿈을 꾸면 위대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모두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하는 충북을 통해 우리가 꿈꾸는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충북을 만듭시다.

우리의 100년 미래 목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향해 힘차게 달려갑시다!

무한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드넓은 세계가 우리 앞에 열려 있습니다.

새해에는 160만 도민 모두가 ‘화동세중(和同世中)’ 즉, 도민모두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이 되도록 다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癸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도민 여러분 모두 소원 성취하시고 가정마다 행운이 늘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1. 3. 2013년 신년인사회 인사말씀

2013년은 신수도권의 중심에 우뚝 서는 원년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아 지역발전을 이끌고 계신 경제인 여러분과 각급 기관·단체장님들께서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뜻깊은 행사를 준비하신 오흥배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기관·단체·지도자 여러분 !

계사년 새해 새아침 6시 30분 우리충북에 기쁜 소식이 두개나 날아 들었습니다.

하나는 그 토록 바라던 통합청주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고, 또 하나는 충북관련 정부예산이 사상 최대규모인 3조 8,964억원으로 국회를 통과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우택·변재일 국회의원님, 통합추진위원회 위원님들, 공무원들, 도민들 모두에게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 2013년도 기관단체 신년인사회

지난해는 대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도는 160만 도민의 힘으로 ‘5관왕의 영예’를 따냈다고 자부합니다. 지난 20년간 4 번의 도전 끝에 이룬 청주·청원통합 결정, 충북 경제의 신화를 새로 쓰 게 될 경제자유구역 예비지정,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3조 8,964억원의 국비예산 확보, 정부합동평가 전국 최우수도 달성, 그리고 충북인구 160만 시대 진입 등이 그것입니다.

이밖에도 지난해 수출 120억불을 달성하고, 취업자수 증가율, GRDP 증가율 등에서도 전국 상위권에 기록되는 등 우수한 경제 성적표를 받 은 한 해이기도 합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기관·단체장 여러분 !

올해는 세종시와 함께 충청권을 중심으로 새로운 신수도권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올해를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충북 미래 100년의 청사진을 다시 만들고 기틀을 다져 신수도권의 중심에 우뚝 서는 원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간·계층간·도농간 소통과 균형발전을 통해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영동에서 단양까지 도민을 하나로 이어줄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와 청주국제공항 활주로 연장, 중부내륙선 철도 등을 조기에 착공하여 160만 충북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 해나가겠습니다.

우리 충북이 금년 한해 和同世中, 즉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새롭게 펼쳐지는 ‘신수도권의 중심’이 되도록 도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경제인 여러분! 그리고 기관·단체장 여러분 !

올해는 우리 충북을 세계에 선보이는 두개의 큰 축제가 열립니다. 우리 화장품과 뷰티산업을 전 세계에 자랑할 오송 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와 세계 80여개국 2,300여명의 선수들 참가하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그것입니다.

“충북은 세계로!, 세계는 충북으로!”라는 구호 아래 열리는 두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민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오흥배 회장님을 비롯한 경제인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고,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사년 새해! 여러분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고, 소원 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 1. 7. 2012 충북체육상 시상 및 2013 신년회 인사말씀

2012년은 체육인들의 노력으로 충북체육이 대풍을 거둔 한 해

존경하는 충북 체육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해 모든 소망을 이루시고 가정에도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주신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 이기용 교육감
님, 경기단체회장님들을 비롯한 충북체육회 임직원과 지도자 여러분,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해 충북체육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충북을 빛낸 자랑스러운
체육인들에게 상을 드리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먼저, 지난해 충북체육의 위상을 국내는 물론 세계 속에 드높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여 영예의 수상을 하신 53분의 개인상 수상자와 4
팀의 단체상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랑스런 체육인 여러분!



▲ 2012 체육상 시상식

돌이켜 보면 지난 해 우리 충북체육은 한마디로 대박을 터트린 한 해였습니다.

런던 하계올림픽에서 유도의 송대남, 사격에 최영래 선수 등 우리도 출전 선수들이 뛰어난 활약을 펼쳐 우리나라가 종합 5위의 위업을 달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진천 국가대표훈련원에서 훈련한 사격, 양궁 종목에서 따낸 13개 금메달 중 절반인 6개의 금메달 따내 우리 충북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런던패럴림픽에서는 우리나라 전체 금메달 9개 중 4개를 우리 도 선수가 따내는 쾌거를 이뤘고, 경부역전마라톤 대회에서 7연패와 함께 총 17번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밖에도 전국소년체전 3위, 전국장애인체전 4위, 전국체전 11위, 2017년 전국체전 유치, 국가대표훈련원 제2선수촌 유치 등 충북체육이 대풍을 거둔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타 시도에 비해 체육기반시설과 선수층 등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이뤄낸 값진 성과로 충북체육인 여러분의 현신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존경하는 체육인 여러분!

올해 우리 충북체육은 더 큰 도약을 위한 중요한 과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선, 올 8월에 열리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을 위해 체육인은 물론 160만 도민들이 힘을 모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수선수 발굴과 육성을 통해 전국체전 중위권 도약을 위해 유망 종목별로 대학과 실업팀 창단에도 도민 모두의 역량을 결집해야 하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자랑스런 충북체육상을 수상하신 수상자 여러분께 거듭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희망찬 계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충북 체육인들도 和同世中 즉,
“160만 도민이 하나 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신수도권의 중심으
로 도약”하는데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소원성취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13. 1. 16. 9988 행복나누미 사례발표 보고회 격려사

행복나누미는 어르신들께 행복을 드리는 천사

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과 160만 도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길 축원합니다.

먼저 먼 길을 마다않고 참석해 주신 시·군 노인회장님과 단체장님, 그리고 일선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시는 9988 행복 나누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어르신 여러분의 권익향상에 큰 관심을 갖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수 도의회의장님과 도내 어르신들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전태식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시군 회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사를 빛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최정묵 충청북도 노인복지관협회장님, 이현임 충북노인복지협회 회장님, 반영억 충북 재가시설협회 회장님과 시간이 없어서 일일이 소개는 못하지만 다른 많은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항상 행복나누미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이분들이 바로 천사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어르신들께 건강치료사 웃음 전도사, 행복 나누미, 행복을 드리는 천사, 건강을 드리는 천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행복나누미 여러분들이 노력이 충북을 충북에 특히, 농촌에 큰 변화를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민선 5기 도지사로 취임한 아래 함께하는 충북을 제일의 도정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바로 함께 하는 충북을 만드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하는 충북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고, 어르신과 젊은이가 모두 함께 하는 충북을 말합니다. 그중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농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하고 지역의 격차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도시지역 어르신들은 인근 복지관을 이용하면 되지만, 농촌지역 어르신들은 복지관이 멀어서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복지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점을 개선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바로 9988 행복나누미 사업입니다.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은 효과가 매우 크다고 평가 받고 있고, 전국 다른 도에서도 배우러 오고 있습니다.

행복나누미 여러분들께서는 자긍심을 갖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경로당을 두 배로 확대하고, 행복나누미의 체
우도 대폭 개선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여 도시와 농촌에 계신 어르신 모
두가 다함께 행복한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
며, 2013년 새해에 여러분 가정에 늘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 9988 행복나누미 사업 사례발표 보고회

2013. 1. 30. 이스타항공 심양 정기노선 취항식 축사

이스타항공과 충북도는 항공기 정비사업 협력을 위한 동지

오늘은 우리 충북의 새로운 하늘 길이 열리는 기쁜 날입니다.

또한 우리 청주공항이 국제공항으로서의 위상을 한 층 더 높이는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이처럼 뜻 깊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이스타항공 이경일 회장님, 박수전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뜻 깊은 행사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중국 심양 캉휘여행사 짹숴등 사장님과 청주공항 활성화 대책추진위원회 정종택 위원장님, 이영희 충북여성단체 협의회장님, 심청용 공군 제17전투비행단장님,

곽임근 청주시부시장님, 오진섭 청원군부군수님, 김재권 청주세관장님, 최중봉 한국공항공사 청주지사장님, 이상영 충북관광협회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를 넘어서 세계 최고를 목표로 하는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8만



▲ 이스타항공 청주-심양 정기노선 취항식

시간 무사고 기록과 탑승객 700만명 돌파를 앞둔 우리나라 항공여행의 대중화의 선봉장입니다.

이스타항공이 충북과 첫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 2009년 6월 청주와 제주를 오가는 정기노선을 운항하면서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5월에 우리도와 항공기 정비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스타 항공과 우리 충청북도는 운명을 함께할 동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타 항공의 이번 심양노선 취항으로 우리나라 전국민의 36%에 달하는 청주공항 이용권역 1,800만명의 국민들에게 보다 다양한 해외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에 주 2회 정기 취항하는 중국 심양은 중국 5대 도시 중의 하나로 중국 관광객 유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운항횟수를 주 3회로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오는 5월에 오송에서 개최되는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에 중국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귀한 결정을 해 주신 이경일 회장님과 박수전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스타 항공이 우리 청주공항에서 튼튼한 뿌리를 내려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우리 청주국제공항은 인근 KTX 오송역 등 사통팔달의 뛰어난 접근성으로 2007년 이용객 100만명을 넘어서 연간 이용객 130만 명이 넘는 우리나라 5대 국제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출범한 세종시에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중앙 부처들이 본격 이전하면서 청주국제공항은 이제 새로운 중부권의 대표공항, 세종시의 관문공항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장거리 국제노선과 대형화물기 운항에 필요한 활주로 확장과 북측진입도로 개설,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연

장 등 인프라를 더욱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오는 2월로 예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이 본 지정을 받게 된다면 에어로폴리스를 본격 개발하는 등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취항하는 심양 정기노선이 세계 최고의 초일류 항공사를 꿈꾸는 이스타항공의 무궁한 발전의 도약대가 되고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의 대표공항, 세종시 관문공항으로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하신 이스타항공 전 직원과 내빈 여러분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3. 2. 9. 설명절 교통봉사활동 현장격려(청주시외버스터미널)

2012학년도 충북도립대학 학위수여식 치사

대학적십자 지도교수전국협의회 총회 축사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선포 2주년 기념사

2013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 발대식 격려사

2013. 2. 14. 2012학년도 충북도립대학 학위수여식 치사

전문대학 최초로 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한 중부권 명문대학

자랑스러운 364명의 충북도립대 졸업생 여러분!

영광의 학위취득과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학위수여식이 있기까지 학생지도에 정성을 다해 주신 연영석 총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과 교직원,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학생들을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학위수여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임현 충청북도의회 부의장님, 지역대학이라는 자부심으로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희태 옥천군의회 의장님, 한홍구 옥천부군수님, 김충환 옥천경찰서장님, 조성준 옥천교육장님, 안명호 농협옥천군 지부장님, 한기동 바르게살기운동 옥천군협의회장님, 충북도립대학 기성회 한계수, 박준용, 강혜영 이사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

도내 유일의 공립대학인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교육역량 강화사업에 5년 연속 선정되어 73억원의 국비를 지원받았고 전문대학 최초로 기관평가 인증을 획득함으로써 중부권 명문 대학의 기반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153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함으로써 2011년도에 전국 국공립대학 중 취업률 1위를 기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전국 도립대학 중 취업률 2위를 기록하는 쾌거를 이루어 냈습니다.

또한 지난해에는 등록금 30%를 전격적으로 인하하고 총 1,049명의 학생 중 60%가 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였으며 특히 전체 학생 중 4분의 1에 이르는 학생들에게는 이른바 ‘꿈의 고지서’로 불리는 ‘0원 고지서’, 즉 전액 장학금 혜택을 주는 등 장학제도에서도 가장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각 대학들이 등록미달 사태를 빚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2007년부터 6년 연속 정시모집 등록률 100%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7년 연속 등록률 100%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충북도립대가 이렇게 성장하기까지는 연영석 총장님과 교수님들의 헌신, 그리고 5만 4천여 옥천군민을 포함한 도민들의 각별한 사랑과 박덕흠 국회의원님, 임현 부의장님, 김재중, 황규철 의원님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내외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160만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곳곳에서 놀라운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 해 우리 도는 청주·청원 통합결정,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달성, 역대 최대 규모인 4조원대의 정부예산 확보, 도민 160만 시대 진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도정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조사 결과를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 도민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국 1위로 나타나 신수도권 기대의 중심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을 한껏 드높여 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

옥천을 비롯한 남부 3군은 신발전 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포도·복숭아·시설채소 등 생명농업 거점지구로 선정되어 지역 특화산업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입니다.

또한, 세종시의 배후 관광기능을 담당할 남부권 바이오산림 휴양밸리가 박근혜 당선인 공약에 들어가 본경 조성될 예정이며, 충북 도민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증평~보은~옥천~영동을 연결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본격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운행을 시작한 남부지역 심야버스는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지역간 거리를 더욱 좁혀 ‘함께하는

충북'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졸업생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올해 우리 충북에서는 두 개의 큰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화장품과 뷰티산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될 오송 화장 품·뷰티 세계박람회가 오는 5월 3일부터 5월 26일까지 열리고, 세계 80개국 2,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에 열립니다.

160만 충북 도민의 자존심을 걸고 세계 속에 충북을 알리게 될 두 행사가 반드시 성공을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생 여러분 !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동안 키워온 꿈과 열정의 날개를 세상을 향해 활짝 펼치는 날입니다. 저와 우리 160만 충북도민들은 여러분이 꿈과 열정의 날개를 활짝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위취득과 졸업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여러분 앞날에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14. 대학적십자 지도교수전국협의회 총회 축사

가슴이 따듯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대학적십자 지도교수의 사명

사랑하는 적십자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류가 있는 곳에 고통이 있고, 고통이 있는 곳에 적십자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적십자'라는 이름만 들어도 마음이 따뜻해져 옵니다.

먼저 오늘 제31차 대학적십자 지도교수 전국협의회 총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며 160만 도민과 함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총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정국삼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도교수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기 위해 먼 길을 마다 않고 참석해 주신 대한적십자사 유중근 총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성영용 충북지사 회장님, 길병석 적십자봉사회 전국협의회장님, 강석종 RCY충북협의회 위원장님, 이희선 충북여성봉사특별자문위원회 위원장님, 황관구 적십자봉사회 충북지사협의회장님, 이기원 RCY상임지도 위원회 회장님, 여운태 청소년적십자 충북지도교사협의회장님, 이은숙 어린이적십자 충북

지도교사협의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대학적십자 지도교수 여러분!

일등만이 살아남는 치열한 경쟁시대, 오로지 취업준비를 위해 대학생 활의 전부를 보내야하는 요즘 대학생들을 보면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바늘구멍 보다 좁은 취업의 관문을 뚫기 위해 수험서적과 씨름하는 대학생들에게 진리탐구나 대학생활의 낭만은 고사하고 봉사활동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적십자 지도교수님들께서는 대학 RCY 젊은이들이, 인도주의와 봉사정신을 실천하는 가슴이 따듯한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이들과 함께 적십자의 고귀하고 순결한 정신을 실천하여 오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하고 행복한 ‘참교육의 현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도교수님들께서 각 대학 교단에서 학생들에게 전문지식과 많은 스킬(skill)들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가슴이 따듯한 젊은 인재를 양성·배출하여 사회에 이바지 하는 것도 대학적십자 지도 교수님들의 크나큰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적십자의 고귀하고 순결한 정신을 바탕으로, 가슴이 따듯한 젊은 글로벌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적십자 가족 여러분!

1박 2일의 짧은 기간 이지만 충북에 오신 기회에, 충북의 명소도 방문해 보시고 또 향토 음식도 드셔 보시면서 아름다운 우리 충북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북에서는 오는 5월 3일부터 “건강한 생명, 아름다운 삶”을 주제로 오송 화장품·뷰티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8월에는 충주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적십자 가족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홍보와 함께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유중근 총재님과 전국의 지도교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20.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선포 2주년 기념사

충북 100년 번영의 전략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은 우리 충북이 160만 도민의 기대와 염원 속에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을 선포한 지 2년이 되는 매우 뜻 깊은 날입니다.

이같이 뜻 깊은 날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김광수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도의원 여러분, 도정정책자문단 여러분, 그리고 각 분야별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발전소를 도내에 설치하고자 업무협약을 체결해 주신 한국수자원공사 장용식 충청지역본부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에 기여한 공로로 상을 받으신 수상자 여러분과 해품도 디자인 공모전에서 입상하신 수상자에게도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지난 2011년 2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충북 미래 100년 번영의 청사진을 담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을 대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생명산업의 바이오밸리, 태양광산업의 솔라밸리와 지역·계층·산업간 균형발전을 3대 프로젝트로 하고, 여기에 청주국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추가하여 충북장기발전을 위한 ‘3+1프로젝트’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는 이 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160만 도민과 함께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바이오밸리는 바이오밸리 바스터플랜 국제용역에 따라 오송 바이오, 제천 한방바이오, 옥천 의료기기, 과산 유기농바이오를 연계한 바이오 사각벨트를 구축하여 우리나라 바이오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솔라밸리는 광역형 태양광산업 특구 지정을 바탕으로 국내 최고의 태양광산업 중심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균형발전은 도내 전역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남부·북부 도청출장소를 설치하는 등으로 도내 전역이 고루 발전하는 ‘함께하는 충북’의 기반을 닦았습니다.

청주공항은 공항활성화의 기반을 착실히 다지면서 최근 2년 연속

이용객이 130만명을 넘어 중부권의 대표공항으로 자리를 확실하게 굳혀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지난해에는 충북인구 160만 시대 진입,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4조원대의 정부예산 확보, 경제적 행복지수 전국 1위 달성 등 도정사에 길이 빛날 큰 성과들을 많이 거양했습니다.

이처럼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 주신 160만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지난해 7월 세종시가 출범하고,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경제관련 부처들의 세종시 이전이 본격화되면서 600년간 이어온 서울중심의 수도권을 대신할 경제중심의 신수도권 시대가 우리 충북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발전의 중심축이 수도권에서 충청권으로 대이동을 시작하면서 우리 충북에는 지금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가 돌아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변화가 우리에게는 분명 엄청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전략이 바로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우리 충북은 100년 번영의 전략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건설로 충북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생명의 땅 바이오밸리를 세계적인 바이오 메디컬 허브로 조성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세계는 지속적인 성장과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무병장수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바이오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산업의 세계 시장규모는 2009년 1,060조원에서 2014년에는 1,520조원으로 대폭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내 시장도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생명산업의 전략적 요충지인 오송바이오밸리는 세계적인 바이오산업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그동안 상당 수준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해에는 타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와 산학융합지구를 유치하였고 올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의 핵심·연구지원시설이 개관되면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지지 않을 바이오클러스터의 위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8년여를 끌어온 오송 제2생명과학단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의를 거쳐 순조롭게 보상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는 5월에 오송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열리고 2014년에

오송 국제바이오산업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면 우리 충북은 바이오메카로 자리 잡혀 나갈 것입니다.

이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바이오 하면 오송!, 오송 하면 바이오!’ 를 떠올릴 정도로 우리 충북이 바이오를 확실하게 선점 해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우리 도가 국제용역으로 수립한 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 11조 9천억원의 생산유발, 8만 5천여명의 고용을 창출함으로써, 우리 충북이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땅을 활짝 꽂 피우고, 2030년 우리의 목표인 세계 3대 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는 신기원을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둘째 태양의 땅, 충북을 아시아 제1의 태양광 클러스터로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태양광산업은 중국의 가격dump과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연 20% 이상의 고속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2014년 이후에는 안정단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충북은 지난해 1조 3천억원 규모의 태양광 민간투자를 유치하였고, 일본에 1,200만불의 태양광 발전소를 수출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도내 60여개 태양광기업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양전지 종합기술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태양

광센터를 청원과 충주에 유치하였습니다.

또한, 태양광 마이스터고를 지정받았고, 대학에 태양광 전문학과를 개설하여 태양광 산업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젊은 꿈나무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처음으로 경로당 태양광설치사업을 시작하고 일반주택 2천 5백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하는 등으로 전국 최고수준의 태양광 자가발전 보급률을 기록, 태양광 산업육성 전국 최우수도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충북은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태양광산업육성을 위해 충북혁신도시를 전국 최고의 ‘솔라그린시티’로 조성하고, 작년에 성공적으로 개최한 솔라 페스티벌을 확대하여 ‘솔라엑스포’를 개최하는 등 국내를 넘어 아시아를 대표하는 미래 에너지 寶庫 솔라밸리가 우뚝 솟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태양광산업이 국제경기가 살아 날 때 까지는 태양광산업이 최소한의 연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건설하면서 열매 맺은 씨앗들이 도내 전역에 골고루 퍼져 뿌리내릴 수 있도록 균형발전의 기틀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무엇보다 역점을 두고 추진한 과제는 갈라진 충북을 하나

된 충북, 함께하는 충북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영동에서 단양까지 도내 전역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를 본격 착수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더 가까이에서 듣고자 북부·남부 도청 출장소를 설치하여 균형발전의 전진기지로 삼고 있습니다.

제천, 영동 등 도내 대부분 지역에 심야 출퇴근버스를 운행하여 비청주권과 청주권간 소통의 고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도내 전 시군에 도시가스를 확대 공급하여 에너지 소외 지역을 해소하는데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충주기업도시와 진천·음성혁신도시를 균형발전의 전국적인 성공모델로 조성해 나가면서, 남부 3군과 괴산·증평에 이어 단양·제천을 신발전 지역으로 추가지정을 추진하고 도내 낙후지역에 새로운 성장활력을 불어 넣고 있습니다.

민선 5기 이후 2년 반 동안 함께하는 충북,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온 결과, 이제 남부지역에서는 대전광역시로, 북부지역에서는 강원남도로 편입하자는 가슴 아픈 말들이 많이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은 나름대로 큰 성과라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원·청주시 통합 결정으로 청주권은 자율적 성장을 유도하고, 비교적 성장기반이 부족한 비청주권은 도정의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여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통해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넷째, 청주공항이 신수도권의 관문공항으로 비상의 날개를 활짝 펼치기 위한 기반들을 척실히 다져가고 있습니다.

그간 다각적인 공항활성화 전략을 추진하여 2007년도 이후 100만명에 머물던 청주국제공항 이용객이 최근 2년 연속 사상 최고인 130만명을 돌파하였고,

국제경기 불황으로 현재는 일시 운휴하고 있지만 지방공항중에서 유일하게 대형화물기가 취항하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5대 공항으로의 면모를 갖추어 가고 있습니다.

북부지역 주민들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북측진입로는 금년말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제선 확충과 대형화물기 취항에 꼭 필요한 활주로 확장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 중에 있으며, 예비타당성이 잘 나오면 즉시 쓸 수 있는 기본설계비 10억원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또한, 수도권지역의 이용객 확충을 위한 천안~청주공항간 복선전철 연장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하여 기본설계에 들어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청주공항 MRO산업은 국내·외 굴지의 항공 MRO 관련기업들과 사업협력을 체결하는 등 동북아 MRO 허브공항으로의 기반을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청주공항은 화물청사 증축, 오송~청주공항까지 BRT도로 연장 등 지속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세종시의 관문공항, 중부권의 대표공항, 전국 5대 국제공항으로 당당히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금 우리 충북은 도정사상 가장 좋은 발전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신수도권 시대의 개막과 함께 청원·청주 통합,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 바이오밸리, 솔라밸리, 청주국제공항, KTX오송역, 충주기업도시와 충북 혁신도시 등 그 어느 때보다 힘찬 지역발전의 기운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지역발전의 기회를 살려 신수도권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해 160만 도민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운동’을 본격 전개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민간이 주도가 되어 도민 모두가 참여하는 범 도민 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 개의 화살은 쉽게 부러지지만 화살이 여러 개가 모이면 쉽게 부러지지 않듯이, 한 사람의 힘은 비록 작지만 160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으면 위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160만 도민 모두가 힘을 모아, 세종시 원안사수, 첨복단지, 과학벨트, KTX 오송역, 경제자유구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유치 등 위대한 힘을 발휘한 생생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으로 위대한 힘을 발휘하여 우리 충북의 미래요, 꿈이요, 인류의 마지막 寶庫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반드시 실현하여, 우리 충북이 「신수도권의 중심」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비전 실현을 위해 각 분야에서 헌신하시는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2. 27. 2013 농업기계 순회수리서비스 발대식 격려사

고장 난 농기계를 고쳐주는 농기계 의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 고장난 농기계를 수리해 주는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 발대식을 갖는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여러분들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정현 도의회 산업경제 위원장님과 각 농업인 단체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발대식을 준비하신 조광환 농업기술원장님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그리고 직접 현장을 뛰게 될 교관님과 수리요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농업 기계화율은 벼농사가 92%, 밭작물이 50%에 이르고 있어 노동력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는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농촌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농기계 의존도는

높아 졌지만 농기계가 고장 날 경우 수리 인력과 부품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하면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기계 수리인력이 없는 오지마을을 찾아 다니시는 농기계 교관과 수리요원 여러분들께서는 ‘내가 무의촌 진료에 나서는 의사다, 마술사다’라는 자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없는 낙도나 오지마을을 찾아가 의술을 펼치는 의사만 의사가 아니라 산간 오지마을에서 고장 난 농기계를 고쳐주는 여러분들도 농기계 의사입니다.

낡아서 사용하지 못하는 농기계도 여러분들이 몇 번 ‘뚝딱 뚝딱’ 하면 새것으로 바꾸어 놓는 마술사요, 천사들이십니다.

자랑스런 농업기계 교관 및 서비스요원 여러분!

농기계 순회수리 서비스는 농기계 임대사업과 함께 농업인들에게 가장 환영받는 사업으로 민선5기 도정의 목표인 ‘함께하는 충북’의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도정의 중요한 부분을 책임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농촌은 이제 농기계가 없으면 농사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농기계 수요에 맞추어 현재 26

개소인 농기계 임대 사업장을 30개소로 확대(50억원)하는 등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군과 긴밀히 협조하여 일선에서 고생하는 여러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농업인 가족 여러분!

최근 우리 충북은 160만 도민 모두가 힘을 합쳐 ‘함께하는 충북’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곳곳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지난해 우리 도는 청주·청원 통합 결정, 정부합동평가 최우수도 달성, 역대 최대 규모인 4조원대의 정부예산 확보, 도민 160만 시대 진입,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도정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서 우리 충북도민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1위로 나타나 신수도권 시대의 중심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의 위상을 한껏 드높였습니다.

농업분야에서는 전국 최초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제 시행으로 여성 농업인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FTA시장개방에 대비하여 해외시장 개척 단을 파견하는 등 공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총 4억불의 농산물 수출 성과도 올렸습니다.

또한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2015년 괴산 세계유기농 엑스포를 유치

하고 광역친환경 농업단지와 유기농 생태마을을 조성하는 등 제2의 농업혁명으로 불리는 유기농시장을 선점하였고, 귀농·귀촌인구가 전국 1위를 기록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농업인 가족을 비롯한 160만 도민 모두의 땀과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도 행복이 넘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2013. 3. 8. 화장품협회 회장단과 식약청장 간담회(식약청)

제94주년 3.1절 기념사

임산물생산자연합회 창립총회 격려사

옥천소방서 개청식 격려사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출범식 기념사

제2기 충청북도 지정예술단 출범식 축사

자활연수원 기공식 환영사

2013. 3. 1. 제94주년 3.1절 기념사

선열들의 3.1정신을 이어받아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자유의 소중함과 우리 민족의 자존감을 일깨운 역사적인 3.1 독립운동 기념일입니다.

먼저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겠다는 일념으로 조국광복에 몸 바친 선국선열들께 깊이 머리 숙여 경의를 표하며, 독립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지역 독립유공자 중 유일한 생존자로 이 자리에 참석하고 계신 오상근 선생님과 순국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계신 광복회 김원진 지부장님과 김세국 청주·청원연합지회장님, 윤경로 북부연합지회장님을 비롯한 광복회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1정신을 이어받아 지역발전에 앞장서고 계신 대한민국상이 군경회 류득현 지부장님, 대한전몰군경유족회 박복래 지부장님, 대한 전몰군경미망인회 최숙희 지부장님, 대한무공수훈자회 임상도 지부장님, 대한고엽제전우회 김영년 지부장님, 대한6·25참전 유공자회 염병

두 지부장님, 박영환 재향군인회장님, 대한특수임무수행자회 이재영
지부장님, 대한월남참전자회 김수현 지부장님을 비롯한 보훈단체장님
과 회원님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94년 전 오늘, 일제의 총칼에 굴하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 민족자존과
자주독립 의지를 불태웠던 그 날의 선봉에는 우리 고장의 자랑스러운
선열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독립선언의 주역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대표 의암 손병희 선생님
을 비롯한 동오 신흥식, 우당 권동진, 청암 권병덕, 은재 신석구 선생
님 등 여섯 분이 바로 우리 충북 출신이십니다.

그밖에도 단재 신채호 선생님, 의병장 한봉수 선생님, 보재 이상설 선
생님 등 수많은 독립 운동가들이 충북 출신임에 우리는 절로 어깨가 으
쓱하고 자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94년 전 오늘은 선열들께서 선봉에 서서, 장터에서, 거리에서, 산골
짜기 마을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남녀노소 모두 함께 태극
기를 흔들며 소리 높여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날의 그 만세소리에 겨레의 끓는 피가 다시 용솟음쳤고 반만년의
민족혼이 되 살아났습니다.

그로부터 26년 뒤인 1945. 8. 15 우리는 마침내 대한독립을 만천하에

선포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제 우리들은 자랑스러운 선열들의 3.1정신을 이어받아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고 ‘신수도권의 중심’에 우뚝 서야하는 역사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그 역사적 소명을 안고 우리 160만 충북 도민들은 그동안 신수도권 시대의 새 지평을 열게 해준 세종시 원안 사수, 국제과학비즈니스밸트 유치, 청원·청주 자율 통합, 국가예산 지원 4조원 대 달성, 도민 인구 160만 시대 진입 등 충북 역사에 길이 빛날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우리 충북은 최근 사람과 기업이 몰려드는 기회와 희망의 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강원도보다 적었던 충북 인구가 지난해 연말 강원도를 3만 8천명 앞지르는 기적이 일어났고 기업은 지난 2년 반 동안 총 1,633개나 새로 입주했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충북도민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은 충북의 변화된 위상을 잘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최근 우리 주변 정세는 북한의 로켓발사에 이은 3차 핵실험으로 우리 안보가 위협받고 있으며, 극우세력이 집권한 일본에 패권주의 부활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도침탈에 대한 야욕을 끊임없이 불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3.1운동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여기계신 광복회원님을 비롯한 보훈가족 여러분께서는 순국선열들의 3.1운동정신을 이어 받아 증손 자녀 사적지 순례, 경술국치일 기념행사 및 호국영령 위령제를 지내는 것은 물론, 천안함 사건 2주기 행사와 연평도 무력도발 2주기 추모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해 주고 계십니다.

또한 전적지순례, 안보강연회, 휴전선 155마일 종주행사 등을 통해 국민적인 안보의식 고취에도 노력해 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조국광복의 제단에 바치시고, 온갖 풍파를 겪어 오시면서도 오로지 나라사랑의 일념으로 어려운 유족의 길을 걸어오신 광복회원과 보훈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제94주년 3.1절을 맞아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온몸을 던져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아주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다시금 되새겨 보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우리 고장의 항일독립운동사를 재조명하고 3.1공원에 「항일독립운동 기념탑」을 건립하여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려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독립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유가족들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그밖에도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괴산에 중부호국원을 설립하고, 6.25 전쟁 첫 승전지인 충주 동락초등학교 앞에 동락전승지를 정비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올해 우리 도에서는 두 개의 큰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26일까지 24일간 오송에서 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가 열리고, 오는 8월에는 충주에서 전 세계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이 양대 축제가 성공을 거두어 세계 속에 우리 충북의 위상을 크게 떨치는 것도 선열들이 남기신 3.1운동 정신이라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삼일절 기념 참배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선열들의 희생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당당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유가족들을 보살피는데 정성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참석하신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그리고 160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제94주년 3.1절 기념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7. 임산물생산자연합회 창립총회 격려사

충북임산물생산자연합회 창립으로 임업발전과 경쟁력 제고

여러분 축하합니다.

오늘은 우리 충북의 임업발전에 큰 획을 긋는 아주 뜻 깊은 날입니다.

먼저 도 단위로는 처음으로 우리 도가 가장 앞서서 ‘임산물생산자연합회’를 창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새봄을 맞아 영농준비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도내 각지에서 참석하신 임산물생산자연합회 회원님들의 열의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충청북도 임산물 생산자연합회가 창립되기까지 고생하신 조좌연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창립총회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도의회 김동환 부의장님, 전범권 산림청 산림이용국장님, 이재철 충북산림조합중앙

회 충북도지회장, 최순창 충북산림조합장 협의회장님, 신창섭 충북대 산림학과장님,

박재인 백두대간 보존시민연대 대표, 송인규 충북생명의 숲 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님, 이효영 한국 양묘협회 충북도지부장님, 김석영 사방 협회 충북도지부장님, 이효준 임우회장님, 강용구 한국산림사업법인 협회 충북도지회장님, 최달운 산사랑네트 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임산물 생산자 연합회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최근 우리 임업은 미국, EU 등과 FTA가 발효되는 등 시장 개방의 바람이 거세게 불어 닥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도에서는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역발상을 통한 공격적인 수출전략으로 임산물의 명품화와 고급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비가림 재배시설과 박피시설 등 청정임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들을 지원하고, 저온저장고와 운반차량, 포장제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임산물 유통 체계구축을 위한 투자를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임업후계자들을 대상으로 선진 재배기술을 익힐 수 있도록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산림환경연구원 등을 활용한 전문교육으로 충북 미래의 임업을 짚어지고 갈 인력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도 자체 예산으로 청정임산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친환경 임산물 재배농가에게 유기질비료를 공급하는 등 친환경 고부가 가치 임산물 생산을 위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우리 충북은 임산물 생산분야에서도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품목의 생산 기반이 하나하나 튼튼한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은 대추는 전국 생산량의 11.1%에 이르는 1,165톤을 생산,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득액도 174억 7천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영동 호도도 194톤을 생산, 전국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충주 밤은 3,795톤으로 전국 4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짧은 감은 5,154톤을 생산, 전국 4위에 이르고 있으며, 곶감도 52만첩을 생산, 338억원의 소득을 올리는 효자작물이 되고 있습니다.

연간 700톤을 생산하는 청원 표고도 이제 제자리를 잡아가면서 제천의 산약초와 함께 무한한 성장 잠재력을 갖춘 작물로 확실하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충북임산물생산자연합회가 창립됨으로써 우리 도의 임업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거라는 확신이 들어 마음 든든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물을 이루듯이 그동안 품목별로 활동하던 단체

들이 이제 연합회를 만들고 힘을 하나로 모아 우리도의 임업발전을 이끌어 가는 견인차 역할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4천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충북임산물생산자연합회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만큼 회원간의 정보교류와 신기술 개발 등 다양한 활동으로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연합회로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임산물생산자 가족 여러분 !

금년에 우리 도에서는 두 개의 큰 축제가 열립니다.

하나는 오는 5월 3일부터 24일간 오송에서 열리는 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가 그것이고, 또 하나는 8월에는 전 세계 80개국 2,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충주 세계조정선수권대회입니다.

두 축제가 반드시 성공하여 충북의 위상을 전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창립하는 임산물생산자연합회가 임업생산자 여러분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어 줄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충북임산물생산자연합회 창립총회를 거듭 축하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2. 옥천소방서 개청식 격려사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옥천군민의 안전을 지켜 드리기 위한 옥천소방서가 개청식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오늘 옥천소방서가 개청하기까지 수고하신 이강일 소방본부장님과 배달식 옥천소방서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과 이 지역 안전의 파수꾼이신 의용소방대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개청식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김영만 옥천군수님, 박희태 군의장님과 군의원님, 그리고, 박덕흠 국회의원님, 도의회 김재종·황규철 의원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곳 옥천은 금강과 대청호의 맑은 물이 옥토를 이루고 있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자랑인 향수의 고장이고, 문화의 고장입니다.

반면 옥천은 경부고속도로와 경부고속철도가 통과하는 교통의 요충

지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대청댐과 금강이 있어서 수난사고 등 소방 수요가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남부지역에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남부 3군의 중심인 옥천지역에서 소방서가 개청하게 되었습니다.

소방가족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민 여러분!

소방기관이 명실상부한 재난대응기관으로서 그 위치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인정받게 된 배경에는 자기희생을 무릅쓴 소방대원 여러분의 눈부신 활약이 있었습니다.

이 시대의 소방관은 영웅입니다.

영화의 한 장면처럼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영웅처럼 우리 도민들은 소방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자연재해나 불산유출 등 특수재해 발생이 늘어나면서 전문화된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대원의 수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119는 그 나라 삶의 질을 가늠하는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옥천소방서는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안전지킴이 역할

을 충실히 해주실 것을 져와 더불어 전 도민은 여러분을 믿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민 여러분!

지난해 우리 충북은 160만 도민들이 힘을 모아 노력한 결과 청원·청주 자율통합, 도정사상 최대 규모인 4조원대의 정부예산 확보, 경제자유구역 지정, 인구 160만 시대 진입 등 도정사에 길이 빛날 찬란한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또한, 최근 현대경제연구원 조사결과 우리 충북도민들의 경제적 행복지수가 전국 1위로 발표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도민을 위해 헌신하시는 소방가족 여러분과 도정 발전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옥천 군민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친애하는 소방가족 여러분! 그리고 옥천군민 여러분!

금년에 우리 도에서는 두 개의 큰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24일간 오송에서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열리고, 8월에는 충주에서 전 세계 80개국 2,30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립니다.

두 축제가 반드시 성공을 거두어 세계 속에 충북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상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오늘 옥천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새롭게 보강하여 개청하는 옥천소방서가 군민의 안전을 책임질 안전지킴이 역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신뢰와 사랑받는 일류 소방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옥천소방서 개청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방가족과 옥천군민, 그리고 자리를 같이하신 내외귀빈 모두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13. 함께하는 충북 운동 출범식 기념사

함께하는 충북으로 신수도권의 중심에 우뚝서야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소망해 왔습니다. 갈라진 충북을 하나로 엮어 함께하는 충북이 되기를 갈망해 왔습니다.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함께하고, 농촌과 도시가 함께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여자와 남자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충북을 간절히 염원해 왔습니다.

균형발전을 바라는 비청주권의 푸념, 앞이 보이지 않는 농민들의 절망, 영세 서민들의 긴 한숨, 장애인들의 소외감과 어르신의 고독감 등 함께하지 못하는 도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외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5기를 시작하면서 도민들의 이러한 갈망을 태산 같은 명령으로 받들고자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다각

적인 시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지역간 함께하기 차원에서 단양~영동까지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신발전 지역에 단양·제천 추가지정, 북부·남부 도청출장소 설치, 도내 전역에 심야·출퇴근 버스 운행, 농촌마을 CCTV설치, 청원·청주 자율통합, 도내 전 시군에 도시가스 확대 보급 등을 추진하여 지역간·도농간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계층간 함께하기 차원에서 장애인 이동세탁소 운영, 중증장애인 일감 만들어 주기, 장애인이 운영하는 꿈드레 카페, 장애인 스포츠센터 건립,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세대간 함께하기 차원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9988 행복 나누미 사업과 치매와 중풍 걱정 없는 충북 만들기, 초·중학생 전면 무상급식, 충북도립대학 반값 수업료, 성 평등 영향분석 센터 설치, 도내 대학과 우량기업 간 취업지원 협약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민선 5기 들어 금년까지 4년차 동안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달라는 도민들의 이와 같은 지상명령을 실현하기 위해 총 84개 사업에 1조 3천억 여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역대 어느 때 보다 많은 도정의 역량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하는 충북의 기틀은 어느 정도 형성되어 가기 시작한다고 봅니다.

바로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남부지역에서는 대전으로 편입하자는 자조 석인 푸념들이, 북부지역에서는 강원남도로 가자는 가슴 아픈 말들이 많이 회자 되었지만, 요즘은 그런 이야기들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함께하는 충북을 적극 추진한 도정의 나름대로의 성과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도민 여러분! 그러나 함께하는 충북은 도·시·군의 시책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160만 도민의 참여 없는 함께하는 충북은 단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구호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충북이 진정 성공 하려면 도·시·군의 시책 이외에 160만 도민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그동안 닦아온 함께하는 충북의 기틀 위에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범 도민 운동으로 펼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출범식을 갖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우리 충북인들은 예로부터 ‘함께하는 충북’ 정신으로 많은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한반도의 중원(中原)에 위치한 우리 충북은 삼국시대 이래로 민족문화 융합의 중심지가 되었고, 수많은 외세침략으로부터 민족 정체성을 지켜 온 근본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 우리 충북인들은 함께하는 충북의 힘을 유감없이 보여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충북인들은 융합과 함께하는 정신의 힘으로 세계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자랑스러운 반기문 UN사무총장을 배출하였고, 세종시 수정안으로 큰 위기에 닥쳤을 때 몸을 던져 세종시 원안을 사수했습니다.

타 지역과의 치열한 경쟁을 물리치고 과학벨트, 첨단 의료복합단지, KTX 오송역,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을 유치했습니다.

특히, 160만 도민들의 끈질긴 투쟁으로 6년간의 산고 끝에 탄생한 충북경제자유구역은 도민 모두가 함께하여 만들어 낸 또 하나의 거대 학작품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서 보여 주셨던 함께하는 충북의 힘이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그동안 다져온 함께하는 충북의 힘을, 더 크고 더 위대한 힘으로 발전·승화시켜 나가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변화의 소용돌이 한복판에 서있는 지금의 우리 충북은 그 어느 때 보다도 함께하는 충북의 힘을 더 절실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00여 년간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국가권력들이 이제 충청권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면서 정치·경제·사회에 엄청난 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과 경제부처들이 세종시로 본격 이전하면서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기업과 인구가 충청권으로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충청권이 미래의 수도권 즉, '신수도권'으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이 형성되는 신수도권 시대에 일어나는 변화의 소용돌이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의 소용돌이를 우리의 엄청난 이익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160만 도민이똘똘 뭉쳐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처음으로 주어진 이 변화의 기회를 우리의 엄청난 이익으로 승화시키고자 바로 오늘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시대적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이를 위해 민간·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전개하여 지역간·도농간·세대간·계층간 소통과 화합의 구심점 역할을 해나가면서, 행정에서 이를 시책적으로 뒷받침해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 대형마트와 소상인들이 함께하는 동반성장



▲ 함께하는 충북운동 출범식

문화를 확산하고, 다양한 분야의 협동조합 활성화 등을 통해 모든 경제 주체가 조화롭게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충북인의 얼과 뿌리 찾기를 통해 충북인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여 충북인의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고 160만 충북도민 모두가 충북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풍토를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시·군간 자매결연 강화, 각종 대회시 자매결연 혼합팀 구성, 도민화합 이어달리기,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대회 등을 개최하여 서로의 벽을 허물고 함께 소통하며 화합하는 축제마당을 만들어 나가면서,

저소득층 문화예술 공연 무료관람, 장애인 생활용품 우선구매, 자원봉사 릴레이, 다문화가족 나눔봉사단 운영 등을 통해 따뜻한 충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도민운동과 함께 도와 시군에서는 함께하는 충북의 대동맥이 될 충청내륙 고속화도로를 2015년경 착공할 수 있도록 서두르고,

그밖에 지역간·도농간·계층간·세대간 함께하기 위한 각종 균형발전 시책들은 도·시·군이 함께하여 다양하고 과감하게 발굴·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멀리 가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요, 희망인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라는 유토피아를 향해 우리는 멀리보고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직 신대륙을 향하여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컬럼버스와 같은 비장한 각오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강물을 이루듯,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 한다면, 그 힘은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힘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어 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꿈꾸는 신수도권의 중심 충북,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을 기필코 만듭시다!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3. 3. 25. 제2기 충청북도 지정예술단 출범식 축사

더 많은 도민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함께하는 충북 실현

오늘 문화예술의 발전과 공연예술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제2기 충청북도 지정예술단'의 출범을 매우 기쁘고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제2기 충청북도 지정예술단 행사에 참석해 주신 류귀현 충북문화원연합회장님, 조철호 충북예총 회장님, 박종관 충북민예총 이사장님을 비롯한 각 분야 예술단체 대표님과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제2기 충청북도 지정예술단 지정서를 받은 극단 시민극장 장남수 대표님과 씨알누리 라장흠 대표님을 비롯한 예술단원 여러분께 축하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기 충청북도 지정예술단'은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도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연단체 중에서 우수단체를 지정하여 그들이 펼치고 있는 우수한 창작 작품들을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지난 2011년도 3월에 출범한 사업입니다.

오늘 지정서를 받은 2개의 예술단체는 그동안 국내외에서 연극과

국악분야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펼쳐온 모범 예술단체입니다. 이들 두 단체는 앞으로 충북 문화예술의 위상정립과 도민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훌륭한 예술단체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제2기 충청북도 지정예술단은 지역예술의 발전 잠재력을 높이고, 활발한 활동을 통하여 우리 충북을 전국에 알리고 나아가 전 세계에 알리는 촉매제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예술인 여러분 !

우리 도에서는 지난 3월 13일 이곳에서 함께하는 충북운동의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함께하는 충북’은 청주권과 비청주권이 함께하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노인과 젊은이가, 남과 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인과 일반인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따라서 지역간 거리를 좁히고, 계층간·세대간 함께 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온 결과 이제는 어느 정도의 기틀은 다져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위에 도민들이 주체가 되는 ‘함께하는 충북’을 범도민 운동으로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간·계층간·세대간·도농간 단절된 벽을 허물어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160만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하겠

습니다.

우리 충북 예술문화계에 있어서도 ‘함께하는 충북 운동’을 위해 좋은 공연 관람권 지원, 저소득층 문화 바우처를 지원하는 등 문화복지를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지정예술단도 더 많은 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주고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져온 함께하는 충북의 힘을 더 크고 더 위대한 힘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여기에 모이신 문화예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함께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재단기금 확대 조성, 도 지정예술단 운영, 충북문화관 운영 활성화 등 문화예술 기반을 확충하고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 복지를 실현하는데 충북문화예술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출범식 행사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 3. 28. 자활연수원 기공식 환영사

소년원 자리에 구치소 건립을 막고 복지의 꽃 자활연수원 건립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복지교육의 핵심시설인 ‘자활연수원’이 기공식을 갖고 옛 소년원부지인 충주 계명산 자락에 건립되게 된 것을 160만 충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국정에 바쁘신 가운데도 부임하시자마자 충주를 찾아 주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기공식이 있기까지 많은 지원을 해주신 윤진식 국회의원님, 이상용 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님, 이종배 충주시장님, 양승모 충주시의회 의장님, 박용훈 충북지역자활센터협회장님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고 보니 제가 시장으로 재임시 법무부가 현재 산척 면에 있는 충주 구치소를 당시 이곳에 건립하려고 하여 3자 제가 목숨

걸고 절대 반대했던 일이 기억납니다.

소년원을 옮기고 구치소가 들어오면 영원히 수감시설이 될 것 같아 당시 시에서 대체부지로 산척면에 부지를 물색해 주고 대신 보상해 주면서 법무부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법무부를 설득하지 못해 이곳에 구치소가 들어 왔더라면 오늘 이 멋진 자활연수원이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우리사회는 저성장, 고령화 등 어려운 시기에 직면하여 복지정책에도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복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자활 참여자와 자활 종사자의 맞춤형 교육훈련 시설인 자활연수원을 건립하게 된 것은 복지의 새로운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연수원 건립이 올 하반기에 개원하게 되면 충주는 앞으로 수급자에게 희망을 주고, 종사자에게는 신념을 심어주는 전국 사회복지교육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충주가 사회복지 교육의 산실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중심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우리 도에서는 수급자의 자활지원과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가 함께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고, 노인과 젊은이가,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련 예산 대폭증가, 농촌경로당에 9988 행복나누미 지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제도, 초중학생 전면무상급식, 도립대학교 반값 수업료 등으로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모쪼록 오늘 기공식을 갖는 자활연수원은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 나아가 함께하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 귀한 걸음을 해주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한마

2013. 4. 22. (월) 10:00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및 올



▶ 2013. 4. 22. 장애인의 날 기념식(올림픽국민생활관)

제33회 제천시민의 날 축사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식 및 치매·증풍 걱정없는 충북 결의대회 기념사

우석대학교 진천캠퍼스 기공식 축사

2013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 대회사

오송119안전센터 개청식 격려사

제8회 충청북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격려사

진천현대모비스 숲 조성 기념식 축사

신재생에너지산업협회 창립 2주년 기념식 축사

제53주년 4.19혁명 기념일 기념사

청남대 개방 10주년 기념행사 기념사

제33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축사

제11회 충청북도 자원봉사자 한마음대회 격려사

제3회 새마을의 날 기념식 축사

충북경제자유구역청 개청식 인사말씀

2013. 4. 1. 제33회 제천시민의 날 축사

제천이 북부권의 중심, 중부내륙권의 중심 되도록 노력

존경하고 사랑하는 14만 제천시민 여러분!

먼저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맞이하여 제33회 제천시민의 날 행사가 이처럼 성대하게 열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16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제천이라는 지명이 탄생한지 600년이 되는 해로 더욱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천 발전에 앞장서고 계시는 최명현 시장님, 송광호 국회의원님, 김호경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권기수, 강현삼, 전옹천 도의원님,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송만배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영예의 버락오바마 미국대통령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신 최명현 시장님과 시민대상을 수상하신 권희필·이해국 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제천은 충북 북부권의 중심, 중부내륙의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그동안 제천발전을 위해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 북부출장소 설치, 심야 출퇴근 버스를 운행하는 등 함께하는 충북 건설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자연치유도시 제천건설을 위해 2010 제천한방바이오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이후 지난해에는 경찰청 힐링리조트를 유치하고,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를 착공하는 등 유기농한약재 생산과 한방바이오산업 연구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천이 전국 최고의 자연치유도시, 한방과 휴양이 어우러진 명품 힐링도시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63개국의 영상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영상위원회(AFCI) 총회가 오는 9월에 제천에서 개최됨에 따라, 제천이 한국영상산업의 메카로 동서양을 연결하는 영상산업의 관문으로 위상을 드높일 것입니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청풍호반 일원에 작가집필실, 영상실, 교육연수 시설, 전시관 등의 시설을 갖춘 제천 드라마 창작 클러스터를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우리 충북도는 그동안 160만 도민 모두가 함께하는 충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기 위해 지역간 함께하기 차원에서 단양·제천에서 영동까지 충북을 하나로 묶는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 신발전 지역에 제천·단양 추가지정, 북부·남부 도청출장소 설치, 도내 전역에 심야·출퇴근 버스 운행 등을 추진하여 지역간·도농간 거리를 좁히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제천이 북부권의 중심, 중부내륙권의 중심이 되도록 지역의 지도자들과 함께 제천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천시민 여러분!

금년에는 우리 충북을 세계에 선보이는 두 개의 큰 축제가 열립니다.

오는 5월 3일부터 24일간 오송에서는 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오는 8월에는 충주에서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개최됩니다.

3년전 제천한방바이오 엑스포를 성공으로 이끌었던 제천시민의 저력으로 세계 조정선수권대회를 성공시켜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를 준비하여 주신 최명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들, 김호경 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 그리고 제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송만배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천시민 여러분의 앞날에 영광과 축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